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0 | 9 | 제130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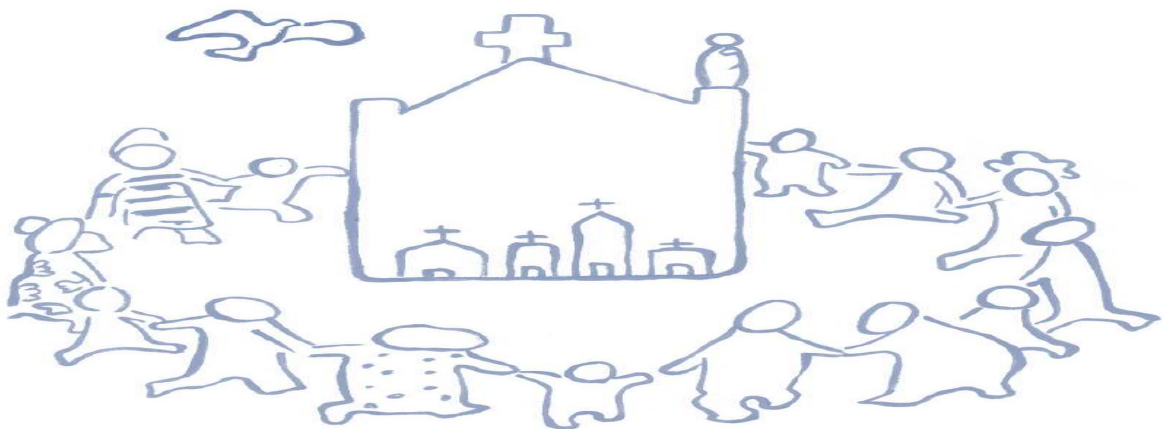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7.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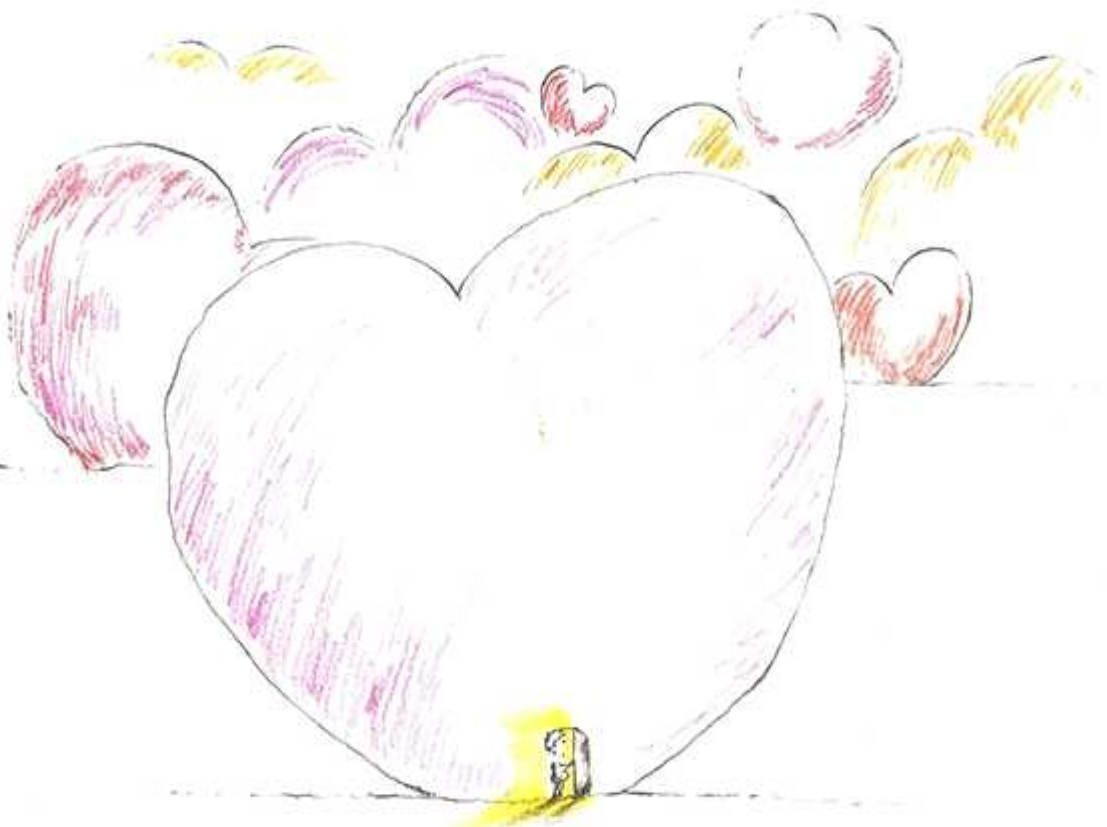
연중 제 24주일 (9월 13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1-35)

Ohnhwa  
Sketch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 마태오 18,22 -

Not seven, I tell you, but seventy-seven times.

- Matthew 18,22 -

##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림 온화스케치 | 바오로딸콘텐츠

지금 망설이지말고 사라으이 문을 열어 끝없이 펼쳐진 사랑의 빛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용서와 사랑의 향기가 마음안에 가득 피어납니다.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썴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24 임금이 썴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여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푼었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2)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해 주었거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 마태 18,31)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 준 적이 있습니까?



## 복음나누기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주고 믿어주는 만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우선 내마음이 편합니다 그리하면 서운하거나  
배신감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기대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기때문에  
서운하거나 배신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데는 오랜 세월이 흐르지만 그것은 두고 두고 우리를 커다란 믿음과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랜시간의 변치않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보게 되니까요 그것은 어떠한 시련에  
서도 변치않을 믿음을 줄 것입니다.

좋았다가 돌변하는 순간의 짧은 인연이 아닌 오랫동안 변치 않는 좋은 인연으로 남았으면...

- 사색의 향기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  
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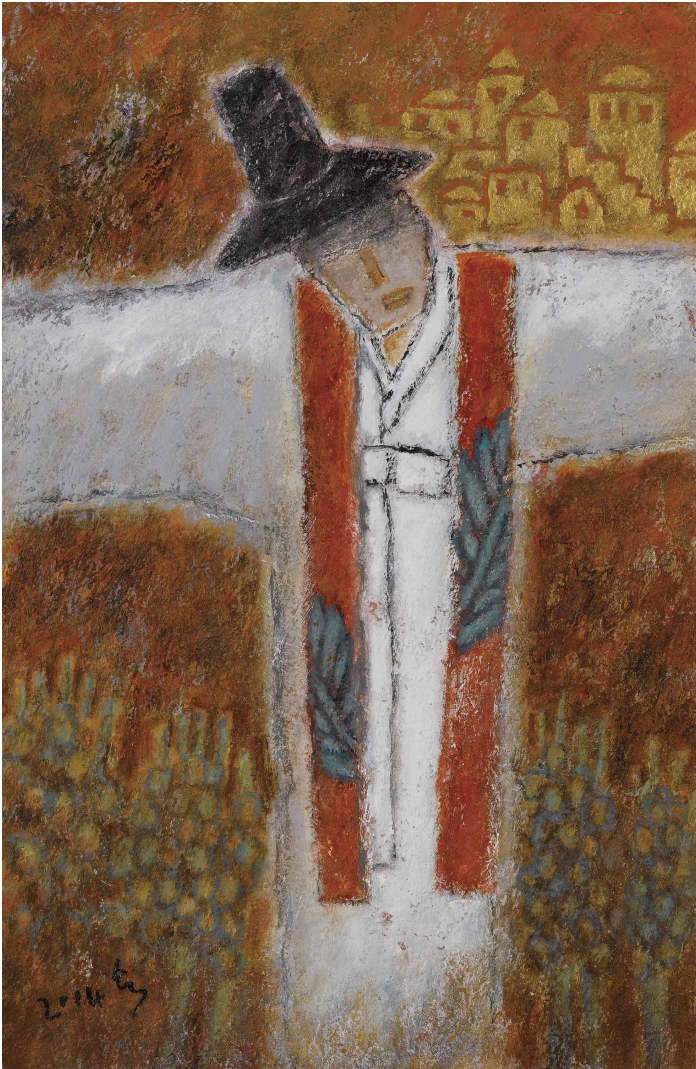




## 복음 나누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6)



### 순교자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4)

어지신 주교 신부 웃으며 칼을 받고      겨레의 선열들이 기꺼이 쓰러졌다.  
피꽃을 몸에 피워 천당에 올랐어라      찰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어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성무일도  
아침기도 찬미가 중에서)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 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내려놓으려 해도 십자가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께 의탁한 적이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안겨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길 끝에 내가 서 있겠다. 십자가를 잘 가져오기를 바란다." 말씀대로 제자들은 길을 떠났다.

시간이 지나자 한 제자의 입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시는가? 그러잖아도 힘든 세상살이인데!" 하지만 다른 제자는 아무 소리 없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힘내어 같이 가자는 말만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십자가가 더 커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만은 더 커졌다. 어찌어찌하여,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서 있는 그 길의 끝에 당도했다. 예수님도 호뭇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하셨다.

투덜거리던 제자가 기어코 한마디한다. "예수님, 아무래도 제 십자가가 저 친구 것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왜 차별하십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본래 똑같은 것이었지.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기꺼이 지려는 이에게는 점점 가벼워지지만, 억지로 지는 이에게는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깨에 지고 꺾꺾거리며 가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란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함께하는 소공동체

### 활기차고 기쁜 경화동본당

- 경화동본당 지역부장 정미정(바실라) -

경화동본당은 올해로 설립 5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 깊은 본당입니다. 저희 본당은 7개 구역과 22개 반으로 나누어져 42명의 구역장, 반장, 부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반구역장도 많이 계시고 반원들이 연로하신 관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소공동체 모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각 반에 환자, 어려운 가정을 찾아 본당에 연락하여 도움의 손을 내밀며 어려운 가운데도 신부님의 배려로 소공동체 반원들의 적극 참여로 교중 미사 후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반별로 돌아가면서 식사준비를 하여 본당 신자들과 음식나누기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당에 크고 작은 일에 솔선수범하며 기쁜 마음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시간이지만 굳건한 믿음과 신심으로 교구와 신부님의 지침에 따라 저희 소공동체 반장, 반원들이조를 편성하여 주일 미사 때는 미사 전 발열체크, 손소독제, 명찰 바코드 입력을 하고 미사 후에는 방역 작업 후 성당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다함께 모여 활기차고 기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 5. 선교활동 지침

- (6) 상대방의 말을 귀담에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힘드셨겠네요." 라고 응답합니다. 일방적인 훈계는 피합니다.
- (7) 방문 후에 나올 때에는 "다음에 들리겠습니다. 자매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 (8) 만나다보면 부담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부담을 드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즉시 사과하고 미소로서 대합니다.
- (9)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논쟁하지 말고 친절과 인내와 사랑으로 대합니다.
- (10)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은 예비 선교에 해당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호감을 삽니다.
- (11)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문제나 장래에 대하여서는 쉽게 대하지 않고 진지해집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하느님임을 강조합니다.

『소공동체 교육 기초단계』(서울대교구사목국,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기쁨을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